

2024학년도 2학기 문헌연구보고서



실용적인 고등금융교육의 실행을 위한 고등학교 경제교육 개선방안

이름	배정민
전공	국제통상학과
학번	20230874

<목차>

주제문

I. 서론

II. 본론

1. 금융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2. 현재 고등학교의 경제교육 현황과 해외의 금융교육 사례 비교

1) 고등학교 경제교육의 현황

2) 해외의 금융교육 사례

3. 10대와 20대의 금융 문제

1) 10대가 금융정보를 습득하는 방법과 그로 인한 문제점

2) 20대의 금융 지식 현황과 부족한 금융 지식이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4. 개정 교육과정의 커리큘럼에 따른 수업 방식 모델링

1)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교육의 형태와 학생들이 선호하는 금융교육

2) 「금융과 경제생활」이라는 과목을 이용한 금융교육 개선안 제시

(1) 체험형 수업 모델링 3가지

(2) 강의형 수업 모델링 2가지

5. 실용적인 금융교육으로 인한 기대효과

III. 결론

요약 및 제언

참고문헌

고등학생들이 이룬 중심의 경제교육을 배우다 보니 성인이 되어 실용 중심의 금융 공부와 거래를 하기 위한 배경지식이 부족한데, 개정 교육과정 금융 교과목의 내용을 모델링 하여 금융거래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현명한 금융 행동을 할 수 있다.

I. 서론

본 보고서는 고등학생의 실용적인 금융교육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그때가 청소년기 중에 가장 많은 지식을 축적했을 때이며, 성인기를 앞두고 다소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실용적인 금융 정보를 체득하기에 제일 적합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금융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는 금융역량의 증진이다. 금융역량은 “금융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과 이용 가능한 금융 서비스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소연 외, 2020:20)”이다.

하지만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인 한진수에 따르면 “방과후 학교에서 경제교육 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학교가 운영한 학교보다 더 많으며, 공급 다양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한진수, 2022:131).”라고 한다. 또한, 금융교육과 관련된 논문의 수가 다른 경제 논문들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금융교육의 개념과 필요성부터 현재 고등학교의 경제교육의 현황과 해외의 금융교육 사례 비교, 10대와 20대의 금융 문제, 개정 교육과정의 커리큘럼에 따른 수업 방식 모델링, 실용

적인 금융교육으로 인한 기대효과 순서로 설명하겠다.

II. 본론

1. 금융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금융교육의 정의는 연구자별, 연도별로 달라졌는데 최근의 정의는 “생활 속의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 일생 동안 경제생활을 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소비와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인을 양성하는 교육(전주희, 2011:5).”이라고 한다.

김자봉은 금융교육의 필요성은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제기되었다고 주장한다(김자봉, 2020:22). 청소년기에 금융교육을 받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 금융투자상품을 구매하려면 기초부터 다시 현재 경제의 흐름 파악과 금융 용어 등을 학습해야 하는데 이를 배울 곳이 마땅치 않다. 심지어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과 질에 맞는 수준의 경제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등학생들이 금융 투자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정보의 옳고 그름을 비판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를 진행한다면 좋은 수익률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OECD는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에서 금융 이해력이 높으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소득 상실에도 대응능력이 양호하다고 발표했다(한국은행, 금융감독원, 2021:2). 이렇게 발표한 내용을 통해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

2. 현재 고등학교의 경제교육 현황과 해외의 금융교육 사례 비교

1) 고등학교 경제교육의 현황

박형준과 한진수는 현재 고등학생들은 교외보다는 교내의 교과 수업 시간 중에 금융교육을 받고 있고, 교내에서는 체험형 활동보다는 단순 강의나 강연 형식의 수업이 많다고 밝혔다(박형준, 한진수, 2018:32, 41). 교과 수업 외 경제교육 과정을 운영한 학교는 245개로 전국 표본의 33.6%다. 그마저도 79%는 교내 동아리 활동(한진수, 2022:134~135)이어서 전문적인 활동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할 수 없다. 사회과 교사들의 경제 교육 이수에도 부족함이 있다. 학생들에게 정확하고 깊이 있는 금융 지식을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한진수에 따르면 전국 단위로 표본 추출한 고2 사회과 교과 교사 가운데 대학교 이상 과정에서 경제학 관련 과목을 아예 이수하지 않은 비율이 260명 중 6.9%다. “경제 수업과 관련한 직무연수를 3년 동안 한 차례도 이수하지 않은 교사가 절반이 넘는 점”(한진수, 2022:138,148)도 문제이다.

강의형 수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경제, 통합사회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경제교육의 현황을 확인해 보니 이론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4 수능특강 경제의 목차에서 잉여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정부실패와 시장실패 등과 같은 내용들은 현실에서 금융생활을 할 때 이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배우고 있다.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은 금융 생활과 신용, 금융 상품과 재무 계획 내용은 마지막 단원이어서 3학년 2학기 때 내신으로 수강하게 되면 수능 준비를 위해 제대로 배우지 않는 경우도 있다. 수능에서 경제를 선택하는 학생도 소수여서 고등학생들이 경제를 보편적으로 배우기는 어렵다.

또, 경제 교과목의 성취기준에 인플레이션과 실업 등 거시경제적인 소재가 있어도 이의 정의에 대해서만 배우지 실제로 저 개념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알지 못하여 응용하지 못하고 단순 이론 학습에 그친다. 예를 들어 일부 교과서와 수능특강에서 ‘인플레이션과 실업’ 부분을 분석해 보면 수요 견인 인

플레이션,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계산 방법 등의 개념 파악에 그치고 인플레이션이 채권 투자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미국 정부가 왜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 실업률에 주목하는지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학습하지 못한다. 혹여나 이 내용들을 실생활에 적용하려고 하더라도 개념을 암기하고 단순 반복하는 문제풀이 방식은 일상생활 활용에 한계가 된다. 정리하자면, 경제교육의 실용성 있는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교육의 필요성에서 서술했듯이 학교에서 배우는 경제, 금융 교과 과정은 현실 경제 상황을 이해하고 본인이 직면하는 다양한 경제 문제들을 합리적이고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해외의 금융교육 사례

미국과 영국 등 해외는 실용적인 금융교육을 이른 청소년기 때부터 이미 도입하고 있다. 정세창에 따르면 미국은 조기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융교육을 별도의 과목으로 가르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개인금융 관리에 대한 테스트의 표준화와 지속적인 교사 트레이닝도 권고하고 있다고 한다(정세창, 2021:269). 교육 체계도 학생의 지능 발달 단계에 따라 다르게 설정했다. 박형준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고학년에 갈수록 신용, 금융 투자 등 저학년에 비해 난이도 있는 실용 금융 주제들을 가르친다고 언급했다. 2015년부터는 고용, 투자, 금융 의사결정과 같은 적극적인 금융교육을 표준으로 투자 수익률 계산 방법, 투자에 영향을 주는 과세제도 등을 삼고 있다고 소개했다(박형준, 2022:193, 208). 이와 같은 계단식 설정은 학생들의 체계적인 지식 축적을 도울 수 있다.

정세창의 분석에 따르면 영국은 교과서를 재산 손실 리스크, 투자 관련 리스크 등 실생활 사례 위주로 구성하여 이론 습득과 동시에 실용성도 키우고 있다고 한다(정세창, 2021:274.). 실제로 교과서 사례를 보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예시를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문제를 이해하게 한 후 모범답안을 보여준다. 그중 하나는 “25세 독신 직장인 남자로 소득이 많지 않아 월말이면 잔고가 £10~£60, 기업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주택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어 현재 무주택자”라는 문제를 상정하고 “~투자보다는 저축이 적절하다고 권고한다(정세창, 2021:274.).”와 같은 모범답안까지 지침서에 알려준다.

미국과 영국의 공통점은 교사 교육에 중점을 두어 학교에 금융교육 관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론 중심의 경제교육인 한국과 실용 중심의 경제교육인 미국, 영국의 차이를 통해 한국의 경제 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알 수 있다.

3. 10대와 20대의 금융 문제

1) 10대가 금융정보를 습득하는 방법과 그로 인한 문제점

대부분 학생들이 교내에서 원하는 수준의 금융 정보를 얻지 못해 유튜브로 배운다는 기사도 많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고등학생 경제 지식 취득 경로를 보면 뉴스 등 TV 방송(47.1), 소셜미디어(45.6), 학교 수업(44.0) 순으로 낮아진다(기획재정부, 2023:5). 이를 고등학교 정규 교육에서 얻기 힘든 금융 정보를 얻어 공부하려는 태도로 본다면 긍정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의 가치관과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고등학생들은 대중매체에서 일률적으로 다루지는 소식들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학습하기보다는 많은 정보 속에서 방황하며 올바른 정보와 왜곡된 정보를 판단하기 힘들 확률이 높다.

2) 20대의 금융 지식 현황과 부족한 금융 지식이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한국은행은 청년들의 건강한 금융 태도를 위해 조기 금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서 청년층(18~29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고 금융 태도 점수는 소폭 하락했음을 밝혔다(한국은행, 금융감독원, 2021:1~2).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22년도 우리나라 성인의 디지털 금융이해력 점수는 42.9점으로 일반금융이해력 점수(66.5점)를 크게 하회하며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한국은행, 금융감독원 2023:5)”이라고 발표했다. 이처럼 소비자의 상당수가 금융이해력이 낮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신뢰도가 떨어지는 정보로 투자를 하거나 위험이 높은 투자 상품을 과도하게 구매할 수 있다. 따라서, 조기 금융교육을 통해 앞으로의 한국 청년들의 금융 지식을 보완해야 한다.

4. 개정 교육과정의 커리큘럼에 따른 수업 방식 모델링

1)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교육의 형태와 학생들이 선호하는 금융교육

교내의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금융교육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학교 교육이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형준과 한진수는 통계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금융교육 내용은 기초 경제원리가 51.6%로 이론 위주의 수업이지만 고등학생들이 원하는 금융 수업 내용은 리커드척도로 5점 만점으로 직업과 소득, 예산관리가 3.95이고 사회보험, 연금, 노후 대비가 3.93이고 신용 관리, 빚 관리가 3.9인 것으로 보도했다(박형준, 한진수, 2018:37, 46). 박형준과 한진수가 1162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학교 밖 전문가나 단체가 제공하는 수업 방식은 강의나 강연이 87.4%, 활동형 체험이 12%이지만(박형준, 한진수, 2018:41) 더욱 최근에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 표본 5000명의 고등학생은 체험형 활동(29.6%), 현장 견학 교육(24.2%)을 선호했고 교육 내용은 금융상품이 52.3%로 1순위를 차지했다고 한다(기획재정부, 2022:6). 박형준과 한진수에 따르면 고등학생들은 강의나 강연을 하는 금융교육 기관은 학교보다 금융회사나 금융단체와 같은 전문가를 선호했다. 희망하는 교육 형태는 소규모 교육, 정기적 교육이나 단기 캠프가 제일 높았다고 밝혔다(박형준, 한진수, 2018:56). 이를 바탕으로 현장 견학 교육, 체험형 교육 등 일정 시간을 요구하는 경험 위주의 교육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금융과 경제생활」이라는 과목을 이용한 금융교육 개선안 제시

앞서 언급한 문제들과 학생들의 금융교육 선호 실태는 금융과 경제생활이라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이용해서 개선할 수 있다.¹⁾ 따라서 「실용경제」와 금융교육 표준안을 일부 참고하여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중 선택과목인 「금융과 경제생활」의 목차에 따른 내용을 구성해 보았다.

영역 (주제)	행복하고 안전한 금융생활	저축과 투자	신용과 위험
내용 요소	디지털 금융 환경과 금융 서비스	이자, 세금, 물가 등/예금자 보호 제도/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신용 회복 지원제도

1) 고등학생들의 실용적인 금융 지식 습득을 위해 「금융과 경제생활」이라는 과목을 선택한 이유는 학생들이 대학 진학 및 학업의 이유로 추가로 시간을 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과과정 내의 커리큘럼을 이용해서 관심 분야의 학문을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게끔 했다. 학생 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각자의 관심 분야를 금융과 관련지음으로써 미래의 금융 행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추후 직업을 통해 얻는 수익을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

<p>목 차 에 따 른 내 용</p>	<p>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계좌 개설 방법, 주식과 채권투자 체계</p>	<p>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저축과 여러 가지 투자가 있다는 것을 종류별로 설명. 단순 매수, 매도로 보이는 명시적인 가격 변동 뿐만아 니라 인플레이션과 환율등 거시경제적인 요소들이 주 식, 채권, 펀드 등 투자에 있 어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설명한다.</p>	<p>2020년 개정 금융교육 표준 안에도 있는 신용의 중요성, 부채관리와 신용 회복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사례 들기</p>
----------------------------------	---	--	--

위의 표 내용을 토대로 2022년 개정교육과정 「금융과 경제 생활」에서 수행할 수 있는 수업 모델링을 앞서 제일 선호한다고 했던 체험형과 강의형으로 나누어 제시해보겠다.

(1) 체험형 수업 모델링 3가지

-2000	광	채권+장	금리하락	인플레이션	금리상승	무인도 ³
채권+장						금리하락
금리하락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채권+장
금리상승						금리상승
광						광
+1000	금리하락	채권+장	광	금리상승	인플레이션	출발

첫 번째로는 채권 보드게임이다. 게임은 천원 10장의 지폐와 주사위 1개를 갖고 진행된다. 우선 채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회사채나 국채처럼 일반적인 채권의 종류를 대상으로 한다. 거시, 미시적인 다양한 변수들을 제외하고 인플레이션과 금리 변동만 고려한다. 인플레이션 칸이 걸리면 채권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10장 다 500원만큼 하락한다. 금리 상승 칸이 걸리면 채권 거래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10장 중 5장의 가격이 250원만큼 하락한다. 금리 하락 칸이 걸리면 채권 거래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10장 중 5장의 가격이 250원만큼 상승한다.²⁾ 채권 +, - 1장은 a와 b가 있을 때 해당 칸에 걸린(a)가 상대방(b)을 지목해서 그 사람(b)이 눈을 감고 (a)의 원하는 금액 칸을 랜덤으로 손으로 짚으면 그 칸 안에 있는 숫자만큼 최종 가격 계산 때 차감한다. 금액 칸은 직사각형 모양의 화이트보드를 5*2로 나눠서 1000원씩 적고 시작하여 보드게임 판의 조건에 따라 보드마크를 이용해서 금액을 변동하는 대로 수정한다. 이렇게 2바퀴를 다 돌아서 높은 금액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규칙이다.

두 번째로는 모의 투자이다. 현실의 주가 변동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어 돈만 가상이고 모든 것이 실제로

2) 채권은 안전자산이다. 일반 개인 투자자는 거시적 변수들에 영향을 미칠만한 힘이 없으므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금리가 하락하면 수익률이 떨어지고, 금리가 상승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채권에 투자하지 않고 주식에 투자하므로 채권 가격이 내려가고 구매자도 줄어든다. 따라서 기업의 자금조달이 곤란해진다. 인플레이션은 명목가치인가 실질 가치 인가의 문제이다. 명목금리-인플레이션=실질금리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뛰어넘는 투자 수익을 얻어야 이득을 본다. 즉, 물가가 상승하면 원화를 받았을 때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져서 수익률이 예상보다 낮아진다. 국민대학교 최봉석 교수님께 자문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채권과 거시변수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변동되는 앱을 통해 모의 주식투자를 해본다. 혹은 차트가 화면에서 흘러가는 동시에 자신의 판단으로 매수, 매도를 진행하여 최종 수익률이 몇 % 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앱을 통해 주식 차트 흐름을 분석한다. 기간 내에 투기가 아니라 분석적인 투자로 최고수익률을 낸 사람에게 소정의 보상을 주면 모의 투자를 재밌고 긴장감 있게 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재무 계획 워크샵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자신의 재산 관리 성향을 파악한 후 가상 금액을 가지고 금액별로 어떤 금융상품을 이용할 것인지 원그래프에 개인의 재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본다. 예를 들어 설문조사 내용에는 ‘지난달 본인이 받은 돈의 몇 %를 저축하셨습니까?’, ‘수익률은 낮지만 안정적인 자산보관과, 안정은 다소 떨어지지만 수익률이 높은 자산보관 중 어떤 것을 선호하십니까?’ 등이 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대한민국 경제 교육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장기 재무 계획을 세움으로써 안전한 금융 생활을 기대할 수 있다.

(2) 강의형 수업 모델링 2가지

강의형에서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론형에서 벗어나서 내용을 중요시해야 한다. 박형준, 한진수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경우 금융교육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중 교육 내용이 52.2%로 제일 높았다고 한다(박형준, 한진수, 2018:48). 따라서 이론을 배우고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의 단순 문제 풀이가 아니라 영국처럼 실생활 사례를 소개하여 실제 금융관리를 할 때 배경지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론들을 가르쳐야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

첫 번째로 금융권 전문가를 초대해서 신용점수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다. 대출 및 카드 사용 규제와 함께 신용점수의 중요성과 그것이 어떻게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배우고 신용점수를 어떻게 확인하고 개선하는지 배운다.

두 번째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것이다. 한진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은 평균적으로 학생들의 경제 역량 강화가 가장 미흡하다고 평가한다고 한다(한진수, 2022:142). 이에 도움이 되도록 현재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KB 스타 경제/금융교실, BNK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금융교육 등을 신청해서 소득과 지출관리, 저축과 투자에 대해 배울 수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깊이 있는 금융교육을 가르치기 위한 교사들의 역량도 중요하다. 교사들의 금융 지식 제고와 금융 강의를 위해 진행되는 현장 교육과 온라인 연수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해당 연수에서는 은퇴 설계와 교육콘텐츠 활용법을 알려준다. 박형준과 한진수가 주장한 고등학생이 선호하는 교육 형태인 단기 캠프(박형준, 한진수, 2018:51)에 위와 같은 활동에 적용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5. 실용적인 금융교육으로 인한 기대효과

청소년기에 받는 금융교육은 청년 때의 금융 이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020년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에서 “금융, 경제교육 수강 경험자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수강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높고 금융 지식 및 금융 행위 부문에서 최소목표점수를 달성한 비중도 더 양호하다(한국은행, 금융감독원, 2021:III).”라고 보도한 것이 근거가 된다. 이를 모델링한 내용에 적용한다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수입과 지출관리, 저축과 투자에 관해 사례와 현재 경제 흐름 현황과 함께 배운다면 추후에 금융 생활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체험형을 진행하면 더욱 흥미롭게 경제를 공부할 수 있어서 금융에 대한 거

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모의 형식의 재무 계획과 투자를 진행하면 현명한 돈 관리와 위험성이 낮고 기준이 잡힌 투자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활동 중 미성년자여서 하지 못했던 신용 관리나 대출 등을 성인기에 하게 되더라도 방황하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위와 같은 체험과 학습을 진행하다 보면 자신이 투자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여 불법 토토처럼 투기하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금융 배경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부정적인 투기와 금융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올바른 경제 지식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행동하는 것이 투기에서 빠져나오기도, 손실을 복구하기에도 좋다. 이런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금융전문가를 통해 교과과정 내에서 투자의 리스크를 자세하게 교육받아 사전 예방을 하면 현명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된다. 또한, 박형준은 “한국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금융채무 불이행 문제가 지속적인 경제 현안이다. 대학 학자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있다”라고 밝혔다(박형준, 2022:214). 따라서, 부채관리와 신용 회복 지원 제도를 미리 배우면 신용 사용의 책임감 증대와 부채의 빠른 반납을 기대할 수 있다.

III. 결론

요약 및 제언

고등학생의 경제, 특히 이론을 떠난 실용 중심의 금융을 가르칠 교사가 부족하지만 학생들은 그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필요하다. 학생들은 실용적인 체험형 금융교육과 금융회사 관계자와 같은 전문가의 강의, 체험형 수업을 원한다. 영국처럼 실생활에 밀접한 사례를 이용해서 수업한다면 이론 수업일지라도 비교적 확실히 금융의 활용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과 경제생활 교과목에서 위의 모델링을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하면 청년기에 앞선 경험을 통해서 현명한 투자와 돈 관리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논문 및 단행본

김자봉, ‘금융교육의 현황과 과제: 금융교육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으로서의 역할 가능성 검토’, “한국경제포럼”, 제13권 제2호, 한국경제학회, 2020.7.31., p.22.

박형준, 한진수, ‘금융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과 희망’, “경제교육연구”, 제25권 2호, 한국경제교육학회, 2018.8.31., pp.32, 37, 41, 46, 48, 50, 51, 56.

박형준, ‘한국과 미국의 금융교육 표준안 비교’, “시민교육연구”, 제54권 3호,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22.9.30., pp.22, 193, 208, 214.

이소연, ‘사회과 교육과정에 대한 금융교육 표준안의 적용가능성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2권 9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학회, 2022.5., p.20.

이소연, 권유진, 김재근, 김태환, 한진수, 박형준,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 개정 연구”, 충북: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10.23., p.20.

전주희, “고등학교 경제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금융영역 내용분석”, 서울: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12., p.5.

정세창, ‘국내 금융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경영교육연구”, 제36권 6호, 한국경영교육학회, 2021.12., pp.269, 274.

한진수, ‘학교 경제교육의 공급 측면 실태와 효과 평가’, “시민교육연구”, 제54권 1호, 한국사회과교육

학회, 2022.3.31., pp.131, 134~135, 138, 142, 148.

인터넷 자료 및 인터넷 신문자료

박원희(2023. 2. 23.), '고교생, 경제지식 얻는 주된 경로는 학교수업보다 TV·SNS', "연합뉴스", 교육,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3076800002>(2023. 4. 2.).

한국은행, 금융감독원(2021. 3. 29.),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결과',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63667&menuNo=200690>(2023. 4. 2.).

한국은행, 금융감독원(2023. 3. 29.), '「2022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결과',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76306&menuNo=200690> (2023. 5. 17.).

기획재정부(2023.2.23.), '2022년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3080(2023.5.22.).